

『星湖僿說』의 형성 배경과 인용서목 분석*

An Analysis on the Foundation Background and Cited References of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 (星湖僿說)

손 계 영(Ke-Young Son)**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인용서목의 분석 및 특징 |
| II. 인용서목의 범위 및 인용방식 | V. 맺음말 |
| III. 성호의 문헌 입수와 자료 관리 | |

초 록

본 연구는 성호 이익의 대표적인 저술인 『성호사설』에 인용된 문헌 443종을 추출하여 인용문헌의 규모 및 문헌의 성격, 중국본의 비중, 최신본의 비중, 주제별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성호사설』 인용문헌 443종을 살펴본 결과, 고려·조선본이 전체 23.3%, 중국본이 76.7%를 차지하였고, 중국본의 편찬시기를 살펴본 결과, 송대 이전 편찬본이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명·청대 문헌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문헌의 주제별 비중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영역은 歷史書類, 詩文集類, 儒教經典類, 小說筆記類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호 이익은 이외에도 잡가류, 유가류, 지리류, 제도규정류, 서화음악류, 자전류, 전기류, 백과사전류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성호 이익(1681-1763), 성호사설, 성호전서, 인용문헌, 類書類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composition background of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湖僿說), the representative work of Yi Ik(李瀾, pen name is Seongho 星湖, 1681-1763), then selected the 443 cited references in the book, and analyzed the features of them such as the scales and characteristics of reference, the proportion of Chinese books, the ratio of latest edition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by subjects. After examining the ratio of Goryeo-Joseon and Chinese books among 443 references in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23.3% of Goryeo-Joseon books and 76.7% of Chinese books cited. The investigation on the editorial period of the referred Chinese books showed that 70% and more were books of the Song and pre-Song period, whereas 22.7% were books of the Ming-Qing period. The analyzation of the proportions of the reference by subject showed that the subject fields with highest percentage appeared in the order of historical books, poetry and prose collections, Confucian classics, and novels and essays. And besides these subjects, he had been interested in various subjects: Miscellaneous Schools, Confucian School, geography, regulation of systems, painting and music, dictionary, biography, encyclopedia, and so on.

Keywords: Seongho Yi Ik, *Miscellaneous Explanations of Seongho*(星湖僿說), *Collected works of Seongho*(星湖全書), Cited reference, Eyclopedia

* 이 논문은 2014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이 논문은 2015년 성호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호사설』의 형성 배경 : 인용서목을 중심으로’를 수정 보완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조교수

•논문접수: 2016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12월 06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2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411-441,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411]

I. 머리말

星湖 李瀾(1681~1763)은 100여 권의 저술을 남긴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호의 독서범위와 관심주제의 방대함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저술이 『星湖僿說』이다. 그는 禮說·樂府·詩文에서부터 曆算·地理·經濟·西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이로 인해 방대한 양의 서적을 소화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서적을 읽었으며 관심 분야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호사설』에 인용된 문헌의 종류와 인용횟수를 살펴보면 성호의 독서 규모와 행태를 알 수 있고 그의 관심주제와 영역을 가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용빈도가 높은 문헌의 경우에는 성호가 이들 문헌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성호의 학문과 사상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동안 『성호사설』의 인용문헌에 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이는 성호가 직접 작성한 별도의 인용서목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인용문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분량의 본문에서 일일이 서목을 추출해야하는 지난함과 함께 본문에서 제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인용출처에서 서명·편명의 여부 확인, 이칭·약칭서명의 본래 서명과 동일 서적의 유무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작업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성호사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문학·언어, 철학·사상, 복식·음식, 민속·지리, 서지학 등의 주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주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성호사설』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주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 주제 분야 연구에 기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호사설』의 인용문헌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성호사설』 인용문헌 분석을 위해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선시대 타 유서류의 인용문헌 연구를 살펴보면, 『지봉유설』, 『임원십육지』,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서류초』 등의 인용문헌 연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최은숙, 1991 ; 김영선, 2003 ; 노기춘, 2006 ; 김채식, 2009 ; 이정호, 2013). 이들 연구 결과는 『성호사설』 인용문헌 분석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 선행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성호사설』의 인용서목을 통해 성호의 독서행태와 관심분야 및 성호의 학문적·사상적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문헌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성호사설』에서 성호가 직접 본 서적 또는 읽은 서적으로 판단되는 서목을 추출하되 재인용한 문헌은 제외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국역 성호사설』을 대상으로 서목 추출을 진행하였는데, 1차적으로 580여 개의 인용서목을 추출하였고, 이를 원문과 대조하여 제대로 된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530여 개로 좁혔다. 또한 이를 대상으로 서명인지 편명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 동일 문헌의 다른 서명인 경우 동일 문헌끼리 묶을 수

있는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최종 443종의 인용서목을 추출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성호사설』의 인용서목의 범위와 인용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성호사설』 인용문헌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호 이익이 방대한 분량의 서적을 볼 수 있었던 배경과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얻고 수집하였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용서목 443종에 대해 편찬시기별·주제별 분석을 통해 성호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분야와 최신자료에 대한 접근 정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성호사설』의 저술 배경을 시론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II. 인용서목의 범위 및 인용방식

『성호사설』에서 특정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인용의 출처를 표현하였는데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저자명으로 인용한 경우, 둘째 문헌의 종류를 언급하여 인용한 경우, 셋째 문헌의 편명으로 인용한 경우, 넷째 서명의 약칭·이칭으로 인용한 경우, 다섯째 저자명과 서명을 함께 사용한 경우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자명으로 인용한 경우이다. 서명은 언급하지 않고 저자명과 함께 해당 저자가 직접 말한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II-A) 蔡西山은 “사람들이 벼락 친 자리에서 벼락 도끼를 주워 오는데 이것은 벼락이 친 뒤에 비로소 뭉쳐진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星湖僊說』 卷2, 「雷斧」)

(II-B) 礪溪선생 柳馨遠이 “湖南에서 만약 黃登·碧骨·訥堤를 수축한다면 蘆嶺 밑으로는 흉년이 없을 것이다.” 했다. (『星湖僊說』 卷3, 「碧骨堤」)

(II-C) 郭璞은 “罍라는 것은 병[壺]처럼 생겼는데, 큰 것은 술 한 섬을 담을 수 있고, 罍이란 병은 서 되 일곱 홑이 든다.” 하였다. (『星湖僊說』 卷4, 「酒器譜」)

두 번째는 정확한 서명 없이 대략적인 문헌의 종류를 언급하여 인용한 경우이다. 천문학서·불경·역사서·야사·소설·지리지 등의 문헌 종류를 언급하여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 경우에 따라 해당 문헌의 저자명을 앞에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인용서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간혹 저자명이 함께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용 내용을 비교하여 해당 서목을 찾을 수 있으나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문헌의 종류를 언급하여 인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II-D) 서양의 천문학에서는, “황도는 영원히 변동이 없고 다만 경성(經星)만이 동쪽으로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고 한다. (『星湖僊說』 卷1, 「北辰」)

(II-E) 일본 역사[日本史]에 “예로부터 외적의 침해를 받지 않았는데, 다만 원나라 때에 많은 군대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가 쳐들어와서 자칫하면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큰 바람이 불어서 원나라의 배가 모조리 침몰됨을 힘입었다.” 했다. (『星湖僊說』 卷2, 「日本樂地」)

(II-F) 江盈科의 小說에, “조나라 사람에 생전에 생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 이 물건이 나무 위에서 結成된다.” 하자, 혹자는, ‘흙 속에서 생성(生成)한다.’고 하였다. (『星湖僊說』 卷28, 「生薑樹頭生」)

세 번째, 서명 없이 문헌의 편명을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G) 鄭愚伏의 「朝天記事」에 이런 말이 있다. “연례(演禮)하기 하루 전에 역관을 시켜 ... 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우복은 바로 서예의 문인인데, 그 전후에 처리한 것이 이와 같이 탁월하였으니, 그 학식과 덕업이 유래가 있다고 할 만하다. (『星湖僊說』 卷9, 「西厓斥僧道」)

(II-H) 그 당시에 요행히 從事官의 「柵中日記」가 있어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와 같이 결백한 충절을 다하고도 그 사실이 숨겨진 자가 또 한량이 있으리라는 어찌 비통한 일이 아니겠는가? (『星湖僊說』 卷11, 「喬一琦李曄」)

(II-I) 「食貨志」에 상고해 보니 “一夫가 다섯 식구를 거느리고 전지 1백 묘를 농사짓는데, ... 5인이 1년 중에 90석을 먹는다고 치면 나머지가 45석이다.” 하였으니, 하사의 녹도 여기에 준한 것이다. (『星湖僊說』 卷7, 「喪祭用飭」)

첫 번째 (II-G)의 「朝天記事」는 『愚伏集』에 수록된 사행기록이고, (II-H)의 「柵中日記」는 李氏寔의 『紫巖文集』에 수록된 청나라 포로 시절 기록이다. 마지막 (II-I)의 「食貨志」는 『漢書』에 수록된 편명이다. 이와 같이 서명을 언급하지 않고 해당 문헌의 일부 편명만으로 인용하고 있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용서목을 찾는 별도의 작업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서명의 약칭 또는 이칭을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이다. 문헌의 완전한 서명이 아닌 축약한 약칭서명 또는 별도의 서명인 이칭서명을 언급하여 인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II-J) 이제 勉齋의 『續通解』에 이를 分類하여 經傳으로 삼았다 해서, 공영달과 가공언의 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星湖僊說』 卷11, 「己亥邦禮」)

(II-K) 『呂覽』에는, “나라를 잃은 社는 하늘을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 해설이 더욱 분명하다. (『星湖僊說』 卷24, 「喪國社亡國器」)

(II-L) 『韻玉』의 杜詩를 인용한 주에, ‘金人 열 둘 중에 하나는 이름이 웅중, 하나는 이름이 君何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웅중과 군하란 열 두 명의 초상을 합쳐서 일컫는 것인가? (『星湖僊說』 卷20, 「阮翁仲」)

첫 번째 (II-J)에서는 黃幹의 『儀禮經典通解續』 약칭서명인 『續通解』로 인용하였고, (II

-K)에서는 呂不韋의 『呂氏春秋』의 이칭서명인 『呂覽』을 사용하여 인용하였다. (II-L)에서는 『韻府郡玉』의 약칭인 『韻玉』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經國大典』, 『高麗史』, 『孔子家語』, 『大學衍義補』 등을 『大典』, 『麗史』, 『家語』, 『衍義補』 등으로 축약하여 인용하였으며, 『大戴禮』, 『商子』, 『北溪字義』, 『莊子』, 『淮南子』 등의 서명을 『大記』, 『商君』, 『性理字義』, 『南華經』, 『鴻烈解』 등의 이칭으로 인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약칭·이칭 서명을 사용하였지만 인용문헌의 본래 서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저자명과 서명을 함께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이다. 저자의 성명 또는 姓氏·字·號를 사용하여 서명과 함께 언급한 사례이다. 본래 서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래 서명을 찾기가 용이하다. 저자 정보와 서명이 함께 사용되어 인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M) 근세에 洪氏의 『歷代總目』에는 “『대전』은 成化 7년 신묘에 이루어졌고, 그 뒤 기사년에 와서 비로소 ‘개가한 자손은 동·서반의 正職에 서용하지 않는다’라고 고치게 하고 ‘증손에 이르러서야 허가한다’는 문구를 빼어버렸다.”한 것은 잘못이다. (『星湖僊說』 卷8, 「庶孽防限」)

(II-N) 나는 俞安期の 『唐類函』을 상고해 보니, 중요한 것만 실렸는데, 왕왕 聲調가 처절 婉曲하여 『초사(楚辭)]의 속편에 마땅히 들어갈 만하다. (『星湖僊說』 卷29, 「八詠樓」)

(II-O) 丘瓊山の 『大學衍義補』에는, “영제 역시 私藏을 한 일이 있었다.” 하였다. (『星湖僊說』 卷25, 「左藏」)

인용서목의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편이다. 첫 번째 (II-M)에서 홍씨의 『역대총목』은 1705년에 편찬된 洪萬宗의 『역대총목』을 의미하며, 두 번째 (II-N)에서는 정확한 저자명과 서명을 사용하여 俞安期の 『唐類函』을 인용하였다. 세 번째 (II-O)에서는 『大學衍義補』의 저자를 丘瓊山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명나라 학자 丘濬의 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자와 서명을 함께 언급한 경우에는 인용서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인용방식 가운데 전자의 두 가지 인용방식의 경우에는 정확한 인용서목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세 번째 편명을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끝내 찾지 못한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해당 편명이 수록된 문헌을 찾아 인용서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인용방식은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로 완전서명(본서명)·약칭서명·이칭서명으로 인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인용서목을 분석하였다. 『성호사설』에서 인용한 서목을 분석한 결과 총 443종의 문헌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부록 참조).

『성호사설』에 인용된 443종의 인용문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16~19세기에 편찬된 類書類의 인용문헌수와 비교해보았다. 別卷의 인용서목이 있어 정확한 인용문헌수의 확인이 가능한 『大東韻府群玉』, 『新編彙語』, 『東圃彙言』 및 선행연구에서 인용문헌수가 밝혀진 『芝峯類說』, 『五洲衍文長箋散稿』와 비교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호사설』은 이전에 편찬된 16~18세기 유서류에 비해 내용의 분량뿐만 아니라 인용문헌의 종수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성호 이익의 문헌 수집력 및 독서량의 정도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지봉유설』에 비해 100여 종의 문헌이 더 많이 인용되었으며, 『대동운부군옥』·『신편휘어』·『동포휘언』과 비교하면 2~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19세기에 편찬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인용문헌수와 비교하였을 때는 2/3 정도에 그치는데, 이는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성호사설』보다 100년 이상 늦게 편찬되어 淸代 문헌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淸代의 문헌수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고,¹⁾ 18세기 중후반 이후 淸代의 서적 간행과 청으로부터의 서적 수입이 활발해짐으로 인해 인용문헌의 종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조선시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類書 및 『성호사설』의 인용문헌수 비교

서 명	大東韻府群玉	芝峯類說	新編彙語	東圃彙言	星湖僊說	五洲衍文長箋散稿
편찬자	權文海	李晬光	金摺	金時敏	李瀾	李圭景
편찬시기	1589	1614	17세기	18세기	18세기	19세기
분 량	20권20책	20권10책	60권20책	15권10책	30권30책	60권60책
인용문헌종수	189종	348종	119종	110종	443종	661종

* 『大東韻府群玉』, 『新編彙語』, 『東圃彙言』의 경우 別卷의 引用書目을 수록하고 있어 인용문헌수의 산출이 용이한 편인데, 각각의 유서류에서는 189종, 119종, 110종의 문헌이 인용되었음 (김영선, 2003)

* 『芝峯類說』의 경우 인용서적을 모두 別卷에 기재하였다고 하였으나, 別卷 인용서목이 현전하지 않으므로 전체 내용을 조사하여 인용서목을 분석한 결과, 총 348종의 문헌이 인용되었음 (최은숙, 1991)

* 『星湖僊說』의 경우에는 別卷 인용서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체 내용을 조사하여 인용서목을 분석한 결과, 총 443종의 문헌이 인용되었음 (필자의 조사·분석)

* 『五洲衍文長箋散稿』의 경우에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자 서목수를 조사한 결과 661종의 문헌이 인용되었음

Ⅲ. 성호의 문헌 입수와 자료 관리

성호 이익이 다양한 서적을 읽고 440여 종의 문헌을 인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문헌을 취할 수 있었는지, 읽었던 내용이 어떻게 관리되었기에 이토록 방대한 주제를 다룰 수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성호사설』에 포함된 다양한 범위의 주제와 분량을 저술하기 위해서는 서적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해당 서적의 내용에 대한 기억 또는 기록하는 행위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오주연문장전산고』 인용문헌 중 明代 문헌이 전체의 23.2%(명대 한역 서학서 포함), 淸代 문헌이 27.7%를 차지하여 명청대 문헌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김채식, 2009, p.146.)

1. 선대로부터의 家藏本을 통한 문헌 입수

가장 중요한 문헌이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서적으로는 집안에 家傳되어 오던 家藏本을 들 수 있다. 특히 성호 이익의 부친인 梅山 李夏鎭(1628~1682)은 두 차례의 使行을 통해 상당수의 중국본 서적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성호의 나이 2세에 부친 이하진이 생을 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사를 보면 집안에 청에서 구입한 중국본이 상당히 잘 보존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A) 3월에 비로소 하직 인사를 하고 중국에 사신으로 나갔다. ... 돌아올 때에 으레 선물로 내려 주는 은괴와 비단을 모두 써서 고서 수천 권을 사 가지고 돌아왔다.²⁾ (『星湖全集』 卷67, 「先考司憲府大司憲府君行狀」)

(Ⅲ-B) 지금 세상에서 유전하는 『淳化閣帖』이란 것은 ... 나의 집에 한 본이 있는데, 바로 선친이 燕市에서 구득한 것으로서 善本이라 일컫는 것이다. 자손은 마땅히 수장하여 유실하지 말아야 한다.³⁾ (『星湖僿說』 卷30, 「淳化帖」)

(Ⅲ-C) 우리 집에 『遺教經』이란 필첩이 있는데, 이것은 先君子께서 燕市에서 사온 것으로 이를 본 이들은 모두 寶藏이라 하지 않는 이가 없다.⁴⁾ (『星湖僿說』 卷4, 「羲之書」)

성호 이익이 작성한 (Ⅲ-A)의 이하진 行狀을 보면 이하진은 두 번째 사행인 1678년 사행에서 돌아오며 중국본 수천 권을 구입하여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호 이익은 부친 이하진이 청나라 燕市에서 구입한 문헌에 대해 종종 언급하였는데 그 사례가 (Ⅲ-B)의 『순화각첩』과 (Ⅲ-C)의 『유교경』이다. 즉 가전되어 온 『순화각첩』과 『유교경』이 燕市에서 구입한 善本임을 강조하며, 이들 서적이 후손에게도 잘 보존되기를 희망하였다.

당시 사행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물건이 서적, 그림, 筆墨 등이었고 청조 이후에는 서적 구입이 명조에 비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사행에서 돌아올 때에 상당량의 서적 구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星湖家の 경우에는 부친 이하진뿐만 아니라 성호의 8대조 李繼孫(1423~1484)에서부터 5대조 李士弼(1503~1556), 4대조의 사촌인 李友直(1529~1590), 3대조인 李尙毅(1560~1624)와 그의 형제 李尙信(1564~1610), 2대조의 만형 李志完(1575~1617)과 그의 아들 李元鎭(1594~1665) 등 여러 인물이 사행을 다녀왔기에 이들이 구입한 서적이 상당량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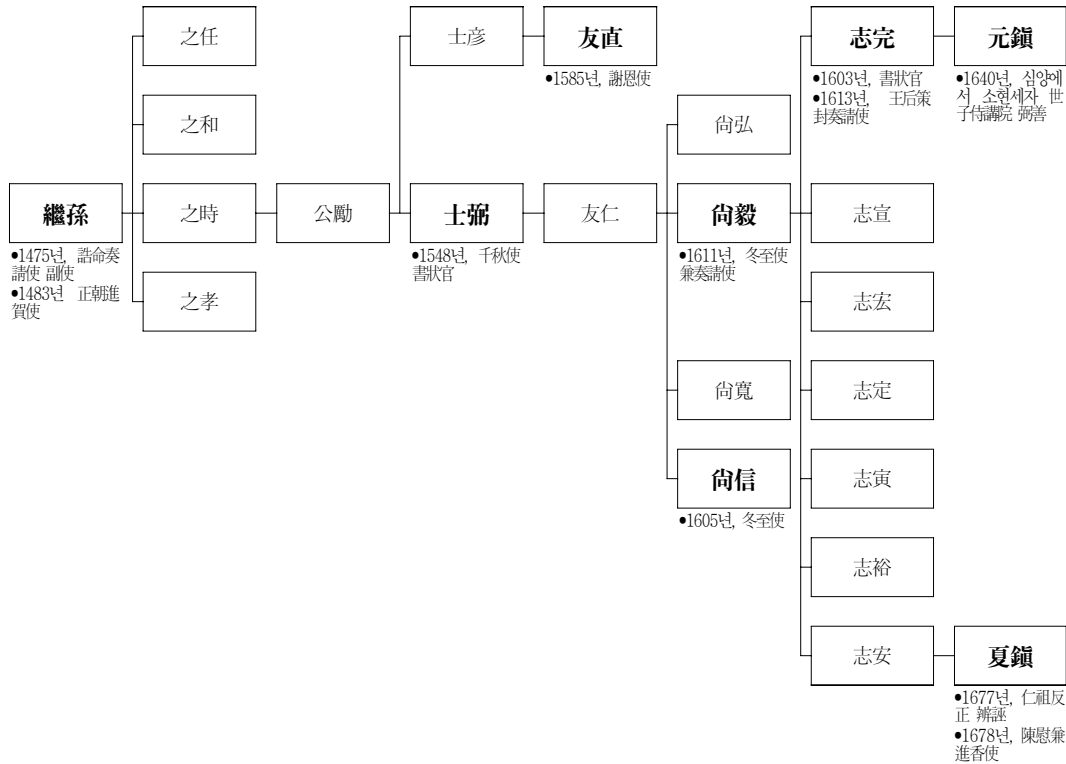
이와 같이 누대에 걸쳐 사행을 다녀온 집안 분위기와 집안에서 가전되어 온 방대한 양의 서적을 통해 성호 이익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중국 문헌을 접할 수 있었으며, 『성호사설』을 비롯한 여러 저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及將還 例有饋賜銀段 乃舉以買古書數千卷以歸” 『星湖先生全集』 卷67, 「先考司憲府大司憲府君行狀」.

3) “余家有一本 即先子求於燕市者 號稱善本 子孫宜謹藏勿失也” 『星湖先生僿說』 卷30, 「淳化帖」.

4) “余家有遺教經 即先君子得之燕市者 見者莫不謂寶藏” 『星湖先生僿說』 卷4, 「羲之書」.

〈표 2〉 성호 이전 선대의 使臣 인물 및 使行 시기



2. 지인의 저서 또는 소장본의 借書를 통한 문헌 입수

성호 집안의 가장본 양이 상당수라 하더라도 최신간행본, 희귀본, 미간행 필사본 등과 같이 소장하기 어려운 서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성호는 미소장 서적의 경우 주변에 소장한 지인을 통해 자주 서적을 빌려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D) 『盛京通志』는 전에 한 번 빌려 봤는데 지금은 곁에 없다.⁵⁾ (『星湖全集』 卷21, 「答尹幼章」)

(Ⅲ-E) 내가 어느 친구 집의 묵은 상자 속에서 얻은 『國朝征討錄』은 지금 선비로서는 얻어 본 자가 아마 드물 것이다. 오래되면 더욱 泯滅될까 염려하여 그 중 번잡한 것은 깎아 없애고 대강 적어 두기로 한다. (『星湖僊說』 卷19, 「征對馬島」)

(Ⅲ-F) 衿陽의 姜主簿 아무개[姜世龜]는 復泉 선생[姜鶴年]의 손자인데, 博覽強記하고 덕을 많이 쌓았으므로 내가 기꺼이 가르침을 받았다. 어느 날 그를 방문하였더니 책 상자 속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책들을 보여 주었다. (『星湖全集』 卷56, 「書姜主簿家藏繡帖」)

(Ⅲ-G) 나의 친구 鄭汝逸이 時務에 마음을 두어 매양 기이한 술법으로 나에게 말해 주었으나 내가

5) “盛京通志 曾一借見 而不在目下” 『星湖先生全集』 卷21, 「答尹幼章」.

원래 이 법에 어두워서 이해가 가지 않았다. 또 『農圃問答』을 지었는데, 옛날 문건에 얹매이지 않고 문득 새로운 의견을 구상하여 규모가 크고 조리가 정밀하여 참으로 불만한 것이 많았다. (『星湖僿說』 卷15, 「車舡」)

(Ⅲ-D)와 (Ⅲ-E)의 내용에서 보듯이 성호 집안에서는 당시 清代 최신간행본이던 『盛京通志』 및 희귀본이던 『國朝征討錄』을 소장하고 있지 않아 주변 지인을 통해 借書의 방식으로 서책을 읽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인물들과 책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친인척 관계 또는 사승 관계의 인물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Ⅲ-F)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르침을 받은 姜世龜 집을 방문하여 집안 소장 희귀본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나 (Ⅲ-G)에서와 같이 친인척 간인 鄭尙驥의 저술을 보았던 사례와 같이 주변 인물과의 借書 관행이 정보 수집과 교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호 집안에서는 누대에 걸친 사행을 통해 중국본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성호 이익은 잘 보존되어 온 가전 서적들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주변의 인맥을 통해 청대의 최신간행본, 희귀필사본, 주변지인의 저술자료 등을 직접 빌려 읽는 借書의 방식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행태들이 『성호사설』에 440여 종의 문헌을 인용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었다 하겠다.

3. 採錄을 통한 자료 수집과 관리

성호는 家藏本과 借書를 통해 상당량의 독서를 하는 한편, 읽었던 서적을 저술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또 다른 자료수집과 관리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독서활동을 통해 읽었던 서적의 내용 및 자신의 견해를 그때그때 채록하고 기록하였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항상 붓과 종이를 휴대하고 다니며 순간순간 떠오르는 자신의 견해를 기록하는 한편, 읽었던 서적의 내용을 매번 採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Ⅲ-H) 내가 『七篇』(『맹자』의 별칭)에다 힘을 쏟은 지 오래되었다. 옛날에 처음 이 책을 읽다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겠다고 문득 생각하였다. 이에 항상 붓과 종이를 휴대하고 다니며 견해가 떠오르면 반드시 기록해 두었다. (『星湖全集』 卷49, 「孟子疾書序」)

(Ⅲ-I) 내가 『退陶門生錄』 한 권을 얻었는데 문헌이 미비하여 기재된 내용 가운데 더러 빠진 것이 있음을 보고 아주 부족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폭넓게 자료를 찾아 나서서 듣는 대로 수집하고 보충해 놓았다. (『星湖全集』 卷56, 「書姜主簿家藏繡帖」)

6) (G)의 사례에서는 성호의 6촌인 李湜의 손자사위이자 성호의 문인인 鄭尙驥가 저술한 『農圃問答』 필사본을 빌려 읽고서 그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이때에도 借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Ⅲ-J) 『退溪集』을 採錄한 것은 소싯적의 일로, 버려둔 지 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병석에서 홀연 다시 생각이 나서 幼章[尹東奎]에게 정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지금 유장이 부지런히 옮겨 기록해 주어서 家塾에 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刪定한 부분이 매우 많아 정신이 혼미한 저로서는 자세히 살필 수가 없습니다. (『星湖全集』 卷24, 「答安百順 壬申」)

(Ⅲ-K) 東眞의 始末은 필시 『金史』에 자세히 실려 있을 것이지만, 책을 두루 구해도 얻을 수 없어 언젠가 대략 採錄하여 기록해 둔 것이 있는데 손자[李九煥]로 하여금 베껴 적어 보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星湖全集』 卷26, 「答安百順 丙子」)

(Ⅲ-H)의 내용과 같이 성호는 『맹자』를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과 견해를 그때그때 기록하기 위해 종이와 붓을 휴대할 정도로 메모와 기록이 일상적인 행위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孟子疾書』 등의 주석서를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태도에 힘입은 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논어·맹자 등의 七書經典뿐만 아니라 평소 읽던 문헌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자료를 찾아 대조하고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충해두었는데, (Ⅲ-I)의 사례와 같이 『退陶門生錄』의 잘못되고 누락된 부분을 다른 자료를 통해 보충하였던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70대 이후에는 병환으로 인해 채록과 기록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Ⅲ-J)에서는 40년 전에 채록한 『退溪集』의 기록을 문인 尹東奎(1695~1773)에게 정리하여 옮겨 적도록 부탁하는가 하면 (Ⅲ-K)의 경우와 같이 『金史』의 내용을 손자 李九煥(1731~1784)에게

〈표 3〉 성호 자신의 저작에 대한 인용 사례

	성호 저작	인용건수	인용사례
1	家禮疾書	1건	지금 『家禮』의 주에, “鬪門의 일반은 九食의 頃이다.”라고 한 것은 틀렸으니, 마땅히 제식례에 따라 三侑九飯의 頃으로 해야 한다. 『論語』에 있는 亞飯이니, 三飯이니 하는 설은 아마 一侑를 飯으로 삼은 듯하다. 그 상세한 것은 『家禮疾書』에 기록되어 있다. (『星湖僊說』 卷30, 「一飯」)
2	藿憂錄	2건	지금은 宗姓과 土族을 모두 몰아서 함께 兵隊로 뒤섞어 놓는다면, 이는 도리어 文은 늦추고 武에만 급하게 하는 것이니, 또한 별도의 처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머지 말은 『藿憂錄』에 자세히 실려 있다. (『星湖僊說』 卷9, 「五衛」)
3	孟子疾書	6건	史趙와 士文伯도 推數를 널리 하였으니 모두 通材라 하겠고, 趙孟이 어진 자에게 양보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에 君子가 많다”고 했다는 것이다. 建正에 대한 이야기는 『孟子疾書』에 자세히 적혀져 있다. (『星湖僊說』 卷19, 「二首六身」)
4	書經疾書	5건	내가 『禮記』의 祭法을 읽었는데 거기에도 “곤은 홍수를 다스리다가 죽었으니 백성을 위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血食의 제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으니, 그 일이 또한 알아서 취할 만하다. 자세한 것은 『書經疾書』에 보인다. (『星湖僊說』 卷7, 「鯀」)
5	詩經疾書	2건	지금 세상에도 식탁 위에 그릇과 접시 따위를 많이 벌여 놓는데 식탁에 사망으로 전이 없으면 불편하므로 모두 전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방조의 제도인 것이다. 자세한 것은 『詩經疾書』에 있다. (『星湖僊說』 卷19, 「梔巖棋房」)
6	易經疾書	3건	三습이란 말은 예부터 있었는데 『주역』의 ‘先後庚’이란 것도 역시 손·경·계를 가리킨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은 『易經疾書』에 있다. (『星湖僊說』 卷21, 「庚癸」)

옳게 적도록 부탁한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헌의 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채록하였던 기록 습관을 통해 자료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성호사설』과 같은 방대한 양의 저술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호사설』에는 성호 자신의 저술을 인용한 사례도 종종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家禮疾書』, 『藹憂錄』, 『孟子疾書』, 『書經疾書』, 『詩經疾書』, 『易經疾書』 등 총 6종이다. 성호는 기존의 저술활동을 통해 經書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성호사설』에서는 간략하고 압축적으로 기술하였으며, 내용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저술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인용빈도 및 인용방식은 <표 3>과 같다.

IV. 인용서목의 분석 및 특징

<부록>에서 제시한 인용문헌 443종의 편저자와 편찬시기, 사부분류, 주제별 분류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문헌인 고려본·조선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중국본의 경우 편찬시기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호가 최신자료에 접근하여 인용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한편, 인용서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주제별 비중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국내본(고려·조선본)과 중국본의 편찬시기별 비중

『성호사설』에 인용된 우리나라 문헌은 총 103종으로 대부분 조선시대 편찬된 문헌이지만 『三國史記』, 『三國遺事』, 『編年通錄』, 『鄉藥方』 등의 고려시대 편찬본도 종종 인용되었다. 인용된 우리나라 문헌은 전체 인용문헌수의 23.3%를 차지하는데, 조선시대 타 유서류의 인용문헌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지봉유설』 등 조선시대 타 유서류에서 우리나라 문헌에 대한 인용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⁷⁾ 『新編彙語』, 『名數

<표 4> 우리나라와 중국 문헌의 인용 비중 및 중국본의 편찬시기별 비중

	高麗本·朝鮮本		中國本					합계
종 수	103종		340종					443종
비 중	23.3%		76.7%					100%
	高麗	朝鮮	秦漢隋唐 이전	宋	元	明	清	
종 수	5종	98종	150종	101종	12종	67종	10종	
비 중	4.9%	95.1%	44.1%	29.7%	3.5%	19.7%	3.0%	
합 계	103종 (100%)		340종 (100%)					

7) 우리나라 문헌을 중심으로 기술된 『大東韻府群玉』과 『東圃集言』은 제외하였음.

之間』, 『閒情錄』의 경우에서 우리나라 문헌 인용이 전무하였으며 『지봉유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헌 인용이 전체의 12% 및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영선, 2003 ; 김은슬, 2008 ; 김채식, 2009 ; 최은숙, 1991). 이처럼 조선시대 타 유서류와 비교해 볼 때 『성호사설』에 인용된 우리나라 문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의 인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중국 문헌의 인용은 77% 정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성호가 『성호사설』에서 인용한 중국 문헌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편찬시기를 크게 唐代 이전, 宋代, 元代, 明代, 清代로 구분하여 각각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국 문헌의 44% 정도가 唐代 이전의 문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宋代 문헌이 30% 정도, 明·清代의 문헌은 2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참조). 즉, 宋代 이전의 고전을 중심으로 독서와 고증이 이루어졌으며, 최신 자료인 清代 문헌의 인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清代本 사례 참조)

〈표 5〉 『성호사설』에 인용된 清代本 사례

1	康熙字典	張玉書(清)等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2	啓禎野乘	鄒漪(清)	史部 > 傳記類 > 總傳之屬	전기류	
3	明季遺聞	鄒漪(清)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4	明史 =大明史	張廷玉(清)等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5	明史記事本末	谷應泰(清)	史部 > 紀事本末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6	牧齋集 =錢牧齋集	錢謙益(清)	集部 > 別集類 > 清之屬	시문집류	
7	盛京通志 =盛京志	魏樞(清)等	史部 > 地理類 > 都會郡縣之屬	지리류	1736년 간행
8	新明史	顧炎武(清)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9	周易折中	李光地(清)	經部 > 易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10	主制群徵	湯若望(清西洋, Johann Adam Schallvon Bell)	子部 > 雜家類 > 西學書	서학류	

청대의 최신 문헌 인용이 3%의 낮은 비중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문헌의 최신 자료 인용은 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호의 중년기 이후인 18세기에 편찬된 조선본을 조사한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인용문헌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최신 문헌의 접근과 수용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성호사설』에 인용된 18세기 편찬·간행 朝鮮本 사례

	서명	저자	편찬·간행시기	사부 분류	주제별 분류
1	國朝寶鑑	李德壽(1673~1744) 等	1730년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2	恬軒集	任相元(1638~1697)	1761~65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3	農叢集	金昌協(1651~1708)	1709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4	農圃問答	鄭尙驥(1678~1752)	1750년 전후	子部 > 農家類	농서류
5	陶山語錄 = 退溪先生言行錄	李守淵(1693~1748)	1733년	史部 > 傳記類	전기류
6	歷代總目 ⇒ 東國歷代總目	洪萬宗(1643~1725)	1705년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7	梅墩集	柳廣善(1616~1684)	1714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8	孟子疾書	李翼(1681~1763)	1718년	經部 > 四書類	유교경전류
9	明史綱目	李玄錫(1647~1703)	1703년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10	博川集 ⇒ 博泉集	李沃(1641~1698)	1721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11	礪溪錄	柳馨遠(1622~1673)	1737년	史部 > 政法類 > 通制	제도규정류
12	三淵集	金昌翁(1653~1722)	1732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13	書經疾書	李翼(1681~1763)	1718년 이후	經部 > 書類	유교경전류
14	藥泉集	南九萬(1629~1711)	1723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15	易經疾書	李翼(1681~1763)	1747년	經部 > 易類	유교경전류
16	柳下集	洪世泰(1653~1725)	1731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17	紫巖文集	李氏寅(1573~1649)	1741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18	耽羅問見錄	鄭運經(1699~1753)	1730년 이후	史部 > 雜史類 > 見聞	기행전문일기류
19	通文館志	金指南(1654~미상)	1720년	史部 > 職官類 > 官制	제도규정류
20	晦隱集	南鶴鳴(1654~1722)	1723년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2. 주제별 비중을 통해 본 성호의 관심영역

성호의 관심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인용문헌의 사부분류 및 주제별 분류를 시도하였다. 인용문헌에 대한 기존연구에서는 『四庫全書總目』에 의거한 四部分類를 기준으로 인용문헌의 주제별 분류 원칙을 삼았다. 본고에서는 과거 經史子集의 사부분류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 개념의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각각의 결과는 <표 7> 및 <표 8>과 같다.⁸⁾

8) 『성호사설』에 인용된 서목들은 『규장총목』, 『열고관서목』 등에 수록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서목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사부분류 방식과 중국 국가도서관의 사부분류 방식을 따랐다. <부록>의 四部分類 및 <표 7>의 사부분류는 고려·조선 본의 경우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방식을 따랐으며, 중국본의 경우에는 중국 國家圖書館 및 古籍與特藏文獻資源의 분류 방식을 따랐음을 밝힌다. <표 8>의 주제별 분류는 사부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보다 현대적 개념의 주제별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주제별 분류는 사부분류의 4개 部와 그 아래의 세부 類에 따라 주제가 구분되었음을 주석 9번과 10번에서 상세히 밝혔다.

〈표 7〉 『성호사설』 인용문헌의 사부분류별 비중

部	類	종수	총수	비중	部	類	종수	총수	비중				
經部	小學類	17	70	15.8%	子部	雜家類	39	173	39.0%				
	禮類	14				儒家類	35						
	春秋類	10				小說家類	33						
	四書類	9				類書類	11						
	易類	6				藝術類	11						
	書類	5				醫家類	9						
	詩類	5				術數類	7						
	總義類	2				道家類	7						
	樂類	1				曆算類	6						
	孝經類	1				兵家類	5						
史部	雜史類	29	123	27.8%			法家類			3	73	16.5%	
	地理類	23					譚學類			3			
	紀傳類	22					釋家類			2			
	傳記類	11					目錄類			1			
	政書類	10					農家類			1			
	編年類	10			集部	別集類	45						
	政法類	4				總集類	10						
	正史類	3				隨筆類	6						
	金石類	2				詩文評類	5						
	史鈔類	2				小說類	3						
	紀事本末類	1				詞曲類	2						
	別史類	1				楚辭類	2						
	輿圖類	1			其他	叢書類	4	4	0.9%				
	詔誥奏議類	1				총합계	443	443	100%				
		書目類			1								
		職官類			1								
		史評類			1								

〈표 7〉의 『성호사설』 인용문헌 사부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子部가 3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史部 27.8%, 集部 16.5%, 經部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類별로 살펴보면 집부의 別集類(45종), 자부의 雜家類(39종)·儒家類(35종)·小說家類(33종), 사부의 雜史類(29종)·地理類(23종)·紀傳類(22종) 순으로 나타났다. 시문집 및 유교경전, 역사서뿐만 아니라 잡가류, 소설가류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알기 이전에는 주제별 분류에서 유교경전류와 역사서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교경전류(53종) 및 역사서류(67종)는 전체 27%의 비중을 보였다. 인용문헌수가 가장 많은 영역은 예상대로 역사서류(67종)이며, 그 다음은 시문집류(59종), 유교경전류(53종), 小說·筆記類(46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⁹⁾ 이를 통해 성호 이익이 관심을 가졌던 독서영역과 주제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소설·필기류 문헌(46종)의 비중이 의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성호 이익이 별도로 관심을 가졌던 주제였음을 알 수 있다.

〈표 8〉 『성호사설』 인용문헌의 주제별 비중

	주제	종수		주제	종수
1	역사서류	67종	14	도가류	7종
2	시문집류	59종	15	풍수·도참류	7종
3	유교경전류	53종	16	천문·역산류	6종
4	소설·필기류	46종	17	기행·건문·일기류	5종
5	잡가류	37종	18	시화류	5종
6	유가류	35종	19	병서류	5종
7	지리류	23종	20	음운류	4종
8	제도·규정류	15종	21	법가류	3종
9	서화·음악류	14종	22	역어류	3종
10	자전류	13종	23	불가류	2종
11	전기류	11종	24	서학류	2종
12	백과사전류	11종	25	농서류	1종
13	의서류	9종	합 계		443종

이상에서 역사서류, 시문집류, 유교경전류, 소설·필기류 등 네 주제 영역의 인용문헌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문헌들이 인용되고 있어 성호의 관심영역이 광범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각 주제별로 雜家類(37종), 儒家類(35종) 외에도 지리류(23종), 제도·규정류(15종), 서화·음악류(14종), 字典類(13종), 백과사전류[類書·博物志類](11종), 傳記類(11종), 醫書類(9종), 道家類(7종), 풍수·도참류(7종), 천문·역산류(6종), 兵書類(5종), 기행·건문·일기류(5종), 詩話類(5종), 音韻類(4종), 총서류(4종), 法家類(3종), 譯語類(3종), 西學類(2종), 佛家類(2종), 農書類(1종) 등의 순으로 많은 문헌이 인용되었다.¹⁰⁾

9) 역사서류는 史部 > 紀事本末類 > 斷代之屬,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通代之屬, 史部 > 別史類/史鈔類/輿圖類/雜史類/正史類, 史部 > 史評類 > 考辨之屬, 史部 > 書目類 > 總目之屬,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事實之屬/其他, 史部 > 政書類 > 雜著之屬, 史部 > 編年類, 史部 > 編年類 > 通代之屬에 포함되는 문헌(67종), 시문집류는 集部 > 別集類, 集部 > 別集類 > 一般/隋唐五代之屬/宋遼金元之屬/魏晉南北朝之屬/明之屬/清之屬, 集部 > 總集類 > 一般/斷代之屬/通代之屬/課藝之屬/氏族之屬, 集部 > 詞曲類, 集部 > 詞曲類 > 詞之屬, 集部 > 楚辭類에 포함되는 문헌(59종), 유교경전류는 經部 > 四書類 > 大學之屬/論語之屬/孟子之屬/中庸之屬, 經部 > 書類, 經部 > 書類 > 尚書緯/傳說之屬, 經部 > 詩類, 經部 > 詩類 > 白文之屬/三家詩之屬/傳說之屬, 經部 > 樂類, 經部 > 易類, 經部 > 易類 > 傳說之屬, 經部 > 禮類, 經部 > 禮類 > 大戴禮之屬/禮記之屬/儀禮之屬/雜禮俗之屬/周禮之屬/通禮之屬/讖緯之屬, 經部 > 總義類 > 石經之屬/傳說之屬, 經部 > 春秋類, 經部 > 春秋類 > 穀梁傳之屬/公羊傳之屬/左傳之屬/讖緯之屬/總義之屬, 經部 > 孝經類 > 傳說之屬에 포함되는 문헌(53종) 소설·필기류는 集部 > 小說類, 集部 > 小說類 > 漢文, 集部 > 隨筆類,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叢書部 > 彙編類에 포함되는 문헌(46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10) 잡가류는 子部 > 雜家類, 子部 > 雜家類 > 雜說/雜學, 유가류는 子部 > 儒家類, 子部 > 儒家類 > 鑑戒禮教之屬/經濟性理之屬/性理之屬, 지리류는 史部 > 地理類, 史部 > 地理類 > 古蹟·外紀/都會郡縣之屬/方誌/山水之屬/外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성호의 조카 李秉休가 작성한 성호의 家狀과 이병휴의 아들 李森煥이 작성한 성호의 祭文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V-A) 또 선생은 읽지 않은 책이 없었으니, 六經과 子史 이외에 단편적인 글이나 漫錄이라도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구해서 읽어 보셨다. (『星湖全集』 부록 권1, 「家狀[從子 李秉休]」)

(IV-B) 서적에 있어서는 보지 않은 것이 없고 통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정밀히 연구하여 반드시 그 핵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百家에 깊이 통하고 고금을 두루 포괄하여 그 학문의 세계가 한없이 드넓어 끝이 없었는데, 그 귀속처로 말하면 七經과 三禮를 표준으로 삼아 부지런히 탐구하여 늙음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셨으며, 만년에 이르러서도 손에서 詩書를 놓지 않아 諷詠하고 玩繹하시다가 이따금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선생의 博文約禮하는 공부입니다. (『星湖全集』 부록 권2, 「祭文[從孫 李森煥]」)

이병휴가 작성한 (IV-A)의 내용에 보는 바와 같이 성호 이익은 유교경전류 및 역사서류 이외에도 단편적인 글이나 일정한 형식·체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쓴 漫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주제별 인용문헌 분석에서도 소설·필기류(46종), 백과사전류[類書·博物志類](11종), 傳記類(11종), 기행·견문·일기류(5종)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B)의 이삼환 제문에서도 성호의 독서행태를 볼 수 있는데, 서적을 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독서가 이루어졌고, 읽은 서적을 더욱 천착하고 연구하여 반드시 그 핵심을 찾고자 하였던 학문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성호는 유교경전·역사서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와 문헌을 섭렵하여 수용하는 한편, 비판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쳤는데, 앞서 이병휴의 가장과 이삼환의 제문에서는 성호가 기피하였던 주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V-C) 위로 日月星辰이 운행하는 度數와 궤도로부터 아래로 초목, 금수, 蟲魚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를 모두 궁구하여 그 廣博함을 이루셨지만, 稗官의 小說과 불교의 경전 및 쓸모없는 여러 術數의 서적은 혹여라도 눈에 가까이 하신 적이 없으셨으니, 이는 선생의 독실함입니다. (『星湖全集』 부록 권2, 「祭文[從孫 李森煥]」)

紀之屬/遊記之屬/雜著之屬/總誌/總志之屬, 제도·규정류는 史部 > 政法類 > 外交·通商/典禮/通制, 史部 > 政書類 > 法令之屬/儀制之屬/職官之屬/通制之屬, 史部 > 職官類 > 官制, 史部 > 詔誥奏議類 > 奏議之屬, 서화·음악류는 子部 > 目錄類 > 金石之屬, 子部 > 藝術類 > 觀賞之屬/文房器物之屬/書畫之屬/遊藝之屬/樂舞之屬/音樂, 史部 > 金石類 > 石之屬/通論之屬, 자전류는 經部 > 小學類 > 方言之屬/字書之屬/訓詁之屬, 백과사전류는 子部 > 類書類, 子部 > 類書類 > 彙考, 전기류는 史部 > 傳記類 > 別傳/叢傳/總傳之屬, 의서류는 子部 > 醫家類, 子部 > 醫家類 > 本草之屬/醫經之屬/總論之屬, 도가류는 子部 > 道家類, 子部 > 道家類 > 概說之屬/道經之屬/先秦學說之屬/眾術之屬, 풍수·도참류는 子部 > 術數類 > 相宅相墓之屬/數理之屬/雜技術/占卜之屬, 천문·역산류는 子部 > 曆算類 > 算學之屬/天文之屬, 병서류는 子部 > 兵家類 > 兵法之屬, 기행·견문·일기류는 史部 > 雜史類 > 見聞/日記, 시화류는 集部 > 詩文評類 > 詩話之屬/總義之屬, 음운류는 經部 > 小學類 > 聲韻之屬/韻書, 법가류는 子部 > 法家類, 역어류는 子部 > 譯學類, 서학류는 子部 > 雜家類 > 西學書, 불가류는 子部 > 釋家類 > 經之屬, 농서류는 子部 > 農家類 등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IV-D) 그러나 異端인 佛家の 글이나 작은 기예인 術家の 서적, 稗官의 雜說 같은 것은 일찍이 눈에 가까이하지 않고 말씀하기를, “내가 평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오직 이 세 종류의 글이다.” 하였다. (『星湖全集』 부록 권1, 「家狀[從子 李秉休]」)

위의 두 내용에서는 공통적으로 성호 이익이 기피하였다는 서적을 3가지 주제로 언급하였는데, 요약하면 ①佛教·佛家の 경전, ②術數·術家の 서적, ③稗官의 小說·雜說이라고 하였다. 이는 명칭으로부터 수입되는 서양의 천주교·지리 서적, 과학기술서, 양명학·고증학 서적, 패관소품문, 소설 등이 당시의 성리학적 질서를 뒤흔든다고 판단하여 이들 서적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있었던 시대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성호사설』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주제가 모두 인용되고 있으며, 이들 주제에 대한 성호의 관심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성호사설』에서 인용된 佛家書 문헌의 인용사례, 서양의 천주교·지리·천문역산·풍수도참 관련 문헌의 인용사례, 明清代 패관소품·소설의 인용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佛家書 인용사례는 『涅槃經』, 『高僧傳』, 『楞嚴經』 등이 있다. 이는 각각 『大般涅槃經』, 『梁高僧傳』, 『大佛頂首楞嚴經』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성호사설』에서 불경의 서명을 직접 언급하여 인용한 경우는 단 3종의 문헌으로 확인되며 그 사례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명을 언급하지 않고 ‘內典’, ‘佛經’, ‘佛書’, ‘佛氏’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불가서를 인용한 사례는 쉽지 않게 살펴볼 수 있으며,¹¹⁾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다라도 비판적 내용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호 이익은 佛家書·道家書·西學書 등의 문헌을 배척하거나 꺼리지 않고 독서하였으며, 이를 인용하거나 해당 내용을 비판·동의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성호사설』에 인용된 明代 漢譯 서양서적

1	坤輿萬國全圖	1602년	역사서류	이마두(利瑪竇, Matteo Ricci, 이탈리아)
2	幾何原本	1605년	천문역산류	이마두(利瑪竇, Matteo Ricci, 이탈리아)
3	簡平儀說	1611년	천문역산류	웅삼발((熊三拔, SabbathindeUrsis, 이탈리아)
4	七克	1614년	서학류	방직아(龐迪我, Didace de Pantoja, 스페인)
5	天問略	1615년	천문역산류	앙마락(陽瑪諾, Diaz Emmanuel, 포르투갈)
6	職方外紀	1623년	지리류	에유락(艾儒略, Giulio Aleni, 이탈리아)
7	主制群徵	1629년	서학류	탕약망(湯若望, Johann Adam Schall von Bell, 독일)

두 번째는 서양의 천주교·지리·천문역산 관련 문헌의 인용 사례이다. 성호 이익은 서양의 서

11)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佛書에, “어미가 나누지 못했다[母未分]”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두 몸이 나뉘짐을 말함이니 역시 면한다는 뜻이다.” (『성호사설』 권12, 「分免」) ; “佛書에 “1만 2천 曇無竭이 東海 金剛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이 풍악을 봉래로 인증하게 되고, 또는 이 풍악의 많은 봉우리가 “1만 2천이란 수효와 똑같게 되었다.”고 한다.” (『성호사설』 권20, 「徐市」)

적과 지식에 상당한 호기심을 보였고, 『성호사설』에서 이들 서양의 서적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다. 明代 漢譯 서양서적을 인용한 사례로는 <표 10>과 같이 7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문헌의 저자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독일 선교사이며, 주제는 천문·역산·지리·천주교 등을 다룬 문헌이다. 이들 서양서적에 대한 인용사례를 통해 성호 이익이 서양 문화와 지식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객관적 비판을 병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은 小品·小說類의 인용사례이다. 소품·소설류는 단편적인 雜記로서 형식이 자유롭고 다양하며 서정·서사·說理 등이 혼합되어 심각한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가벼운 주제로 이어지기도 하여 형식적 변화의 폭이 큰 작품들이다. 소품·소설류의 인용문헌은 분류 방식에서 小說·筆記類로 분류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필기류의 인용문헌수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0>은 『성호사설』에 인용된 소설·필기류 46종 가운데 송·명대의 작품만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이병휴의 글에서 성호는 ‘단편적인 글이나 漫錄이라도 반드시 구해 읽었다’ 하였는데, 『성호사설』에 인용된 소설·필기류가 46종임을 감안한다면 소품·소설류에 대한 성호의 관심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0> 『성호사설』에 인용된 宋·明代 小品·小說類

1	楓櫨小牘 ⇒ 楓窗小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袁褧(宋)
2	稽神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志怪	徐鉉(宋)
3	漫笑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徐槤(宋)
4	明道雜誌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張耒(宋)
5	黠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王銍(宋)
6	北夢瑣錄=北夢瑣言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孫光憲(宋)
7	世說新語=世說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劉義慶(宋)
8	邵氏見聞錄 ⇒ 河南邵氏聞見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邵伯溫(宋)
9	續博物志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李石(宋)
10	續雜纂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諧謔	王銍(宋)
11	新書=南部新書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錢易(宋)
12	夷堅志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志怪	洪邁(宋)
13	青箱雜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吳處厚(宋)
14	清異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陶穀(宋)
15	太平廣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志怪	李昉(宋) 등
16	格致叢書	명대	其他 > 叢書類	胡文煥(明)
17	唐宋叢書	명대	其他 > 叢書類	鍾人傑·張遂辰(明)
18	漫錄 = 病逸漫記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陸釗(明)
19	三國志演義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傳奇	羅貫中(明)
20	說郛	명대	其他 > 叢書類	陶宗儀(明)
21	水滸傳 = 水滸志	명대	集部 > 小說類	施耐庵·羅貫中(明)

22	耳談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志怪	王同軌(明)
23	輟耕錄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雜錄	陶宗儀(明)
24	稗海	명대	其他 > 叢書類	商濬(明)
25	平妖傳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 傳奇	羅本(明)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성호사설』을 대상으로 인용방식과 인용서목의 범위를 설명하였고, 인용문헌의 규모를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서류의 인용문헌수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성호 이익이 방대한 분량의 서적을 볼 수 있었던 배경과 문헌 입수 경로, 자료를 수집·관리하였던 배경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성호사설』 인용서목의 고려·조선본 비중, 중국본의 편찬시기별 분포, 사부분류 및 주제별 분류를 통한 인용문헌의 주제별 비중을 분석하여 최신자료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성호가 관심을 가졌던 주제 영역은 어떠한지를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성호사설』의 인용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 저자명으로 인용한 경우, 둘째 문헌의 종류를 언급하여 인용한 경우, 셋째 문헌의 편명으로 인용한 경우, 넷째 서명의 약칭·이칭으로 인용한 경우, 다섯째 저자명과 서명을 함께 사용한 경우 등이다. 본고에서는 주로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인용방식인 완전서명(본서명)·약칭서명·이칭서명으로 인용한 사례 중심으로 인용문헌 443종을 추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성호사설』에 인용된 443종의 인용문헌을 조선시대 타 유서류의 인용문헌수와 비교한 결과, 17세기에 편찬된 『지봉유설』보다 100여 종의 문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동운부군옥』·『신편휘어』·『동포회언』과 비교하면 2~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19세기에 편찬된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인용문헌수와 비교하면 200종 이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18세기 중후반 이후 청대의 서적 간행과 수입이 활발해지면서 청대 문헌의 인용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성호 이익이 다양한 서적을 읽고 400종 이상의 문헌을 인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본 결과, 성호 집안에서는 누대에 걸친 사행을 통해 중국본 수집이 이루어졌고 집안에 잘 보존된 가전 서적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습득할 수 있었으며, 주변의 인맥을 통해 청대 최신간행본, 희귀필사본, 주변지인의 저술자료 등을 직접 빌려 읽는 借書 방식으로 다양한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배경을 통해 『성호사설』에 440여 종의 문헌을 인용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었던 것이다. 또한 성호 이익은 붓과 종이를 항상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문헌의 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꼼꼼하게 채록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기록 습관을 통해 자료 수집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성호사설』과 같은 방대한 양의 저술이 가능할 수 있었다.

『성호사설』 인용문헌 443종의 고려·조선본 및 중국본 비중을 살펴본 결과 고려·조선본이 전체 23.3%, 중국본이 76.7%를 차지하였고, 중국본의 편찬시기를 살펴본 결과 송대 이전

편찬본이 중국본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명청대 문헌은 중국본의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문헌의 인용 정도를 살펴보면, 청대의 최신 문헌 인용은 중국본의 3%로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 문헌의 최신 자료 인용은 고려·조선본의 20%를 차지하여 최신 문헌의 접근과 수용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용문헌의 주제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성호사설』 인용문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영역은 역사서류(67종, 15.1%), 시문집류(59종, 13.3%), 유교경전류(53종, 12%), 소설필기류(46종, 1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호 이익은 이외에도 잡가류, 유가류, 지리류, 제도규정류, 서화음악류, 자전류, 전기류, 백과사전류 등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카 이병휴가 작성한 성호 家狀에 언급된 ‘단편적인 글이나 만록이라도 반드시 구해 읽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용문헌의 소설필기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송대 및 명대 소품·소설류의 종류가 다양하게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관심분야가 매우 다양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문헌 연구방법에서 인용빈도의 조사와 분석은 빠질 수 없는 작업이다. 인용빈도의 분석은 절대적 시간이 요구되고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인용빈도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 『성호사설』의 인용문헌별 인용빈도 분석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성호 이익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문헌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호의 학문과 사상이 어디로부터 연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李瀾. 1967. 星湖僿說. 서울: 慶熙出版社.
- 李瀾. 1997. 星湖全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李夏鎭. 2007. 六寓堂遺稿.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김영선. 2003. 『한국 유서의 서지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영진. 2004. 『조선후기 명청소품 수용과 소품문의 전개 양상』.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김은슬. 2008. 『한정록의 인용문헌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 관리학과.
- 김채식. 2009.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 김효진. 2012. 『홍재전서의 인용문헌분석을 통한 정조의 독서 행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재환. 2010. 『매산 이하진의 삶과 문학 그리고 성호학의 형성』. 서울: 문예원.

- 민족문화추진회 편. 2007. 『국역 성호전집』.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민족문화추진회 편. 2007. 『신편 국역 성호사설』. 파주: 한국학술정보.
- 최은숙. 1991. 『지봉유설의 서지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여주이씨 성호가문 전적』.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강민구. 2016. 성호사설의 문헌 인용 양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 『동방한문학』, 67: 323-374.
- 김소희. 2016. 성호사설의 이본에 대한 검토. 『성호학보』, 16·17: 203-257.
- 김학수. 2005. 성호 이익의 학문연원. 『성호학보』, 1: 57-112.
- 노기춘. 2000. 산림경제의 인용문헌 분석고. 『서지학연구』, 19: 287-320.
- 노기춘. 2006. 임원십육지 인용문헌 분석고. 『서지학연구』, 35: 231-271.
- 신인수. 1999. 연려실기술의 편찬자료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보』, 23: 113-161.
- 윤재환. 2005. 매산 이하진의 시에 드러난 사실적 표현의 의미와 한계. 『한문학보』, 13: 207-235.
- 이정효. 2013. 經書類抄의 인용방식에 관한 소고. 『서지학연구』, 54: 381-408.
- 정만조. 2012. 성호학의 가문적 배경. 『한국학논총』, 37: 261-292.
- 진재교. 2007. 이조 후기 차기체 필기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9: 387-42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Yi, Ik. 1967. *Seongho-saseol*. Seoul: KyungHeeChulPanSa.
- Yi, Ik. 1997. *Seongho-jeonjib*. Seoul: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Yi, Ha-Jin. 2007. *Yugudang-yugo*. Seoul: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Kim, Young-Son. 2003. *A Bibliographic Study on Yuso*. Ph.D. Chung-Ang University.
- Kim, Young-Jin. 2004. *A Study of Ming and Qing Dynasty's Short Pieces(小品) in the Late Joseon Period*. Ph.D. Korea University.
- Kim, Eun-Seul. 2008. *A Citation Analysis of Hanjeongnok*. M.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im, Chae-Sik. 2009. *A Study of Yi Kyukyeong's Oju-Yeonmunjangjeon-Sango*. Ph.D.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Hyo-Jin. 2012. *A Study on Jeongjo's reading behavior based on the citation analysis of HongJaeJeonSeo*. M.A. Ewha Womans University.
- Yoon, Jae Hwan. 2010. *A Study on the Poetry of Maesan Lee, Ha-Jin's*. Seoul: MunYeWon.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07. *Korean Translations of Seongho-*

- jeonjib*. Seoul: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007. *(New Edition) Korean Translations of Seongho-saseol*.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 Choi, Eun-Sook, 1991.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Jibongryusol*. M.A. Ewha Womans University.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2. *Collection of Manuscripts and Printed Books of Seongho's Yeosu Lee Family*.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Kang, Min-Gu. 2016. "An Empirical Analysis on Modality of References Cited in Seonghosaseol." *Dong-Bang Korean Chinese Literature*, 67: 323-374.
- Kim, So-Hee. 2016. "A study of the different versions of Seonghosaseol." *Journal of the Seong Ho Studies*, 16·17: 203-257.
- Kim, Hak-Su. 2005. "Seongho Yi Ik's Academic Family Lines." *Journal of the Seong Ho Studies*, 1: 57-112.
- Roh, Ki-Chun. 2000. "A study on the citation analysis of Sanlimkyungj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19: 287-320.
- Roh, Ki-Chun. 2006. "A Study on Citation Analysis of Limwonsibyukji."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35: 231-271.
- Shin, In Soo. 1999.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YenReoShillKiSul." *SEOJIIHAKBO*, 23: 113-161.
- Yoon, Jae Hwan. 2005. "The meaning and Limit of realistic representation which appears in poem of Maesan Lee, Ha-Jin's." *Han Mun Hak Bo*, 13: 207-235.
- Chung, Man-Jo. 2012.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learning of Seongho Yi-Ik." *Korean Studies*, 37: 261-292.

〈부록〉『星湖僿說』의 인용문헌

高麗・朝鮮本					
	서명	판찬시기	사부분류	주제 분류	편저자
1	家禮疾書	조선	經部 > 禮類	유교경전류	李瀾
2	看羊錄	조선	史部 > 地理類 > 古蹟/外紀	지리류	姜沆
3	簡易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崔岾
4	良齋錄 ⇒ 良齋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德弘
5	綱目訓義 ⇒ 資治通鑑綱目訓義	조선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李季甸·金汶
6	經國大典	조선	史部 > 政法類 > 通制	제도규정류	崔恒 等
7	谿谷漫筆	조선	集部 > 隨筆類	소설필기류	張維
8	啓蒙傳疑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滉
9	高麗史	조선	史部 > 正史類	역사서류	鄭麟趾 等
10	攷事撮要	조선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魚叔權
11	困齋愚得錄 ⇒ 困齋先生愚得錄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鄭介清
12	藹憂錄	조선	子部 > 雜編類	잡가류	李瀾
13	求仁錄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彦迪
14	國朝寶鑑	조선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李德壽 等
15	國朝五禮儀	조선	史部 > 政法類 > 典禮	제도규정류	許稠 等
16	國朝征討錄	조선	史部 > 雜史類	역사서류	이상
17	己卯錄	조선	史部 > 傳記類 > 叢傳	전기류	金瑋
18	記善錄 = 溪山記善錄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德弘
19	寄齋雜錄 = 寄齋雜記	조선	史部 > 雜史類	역사서류	朴東亮
20	內訓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昭惠王后
21	恬軒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任相元
22	老乞大	조선	子部 > 譯學類	역어류	邊憲
23	農巖集	조선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金昌協
24	農圃問答	조선	子部 > 農家類	농서류	鄭尙驥
25	大東金石錄 ⇒ 大東金石書	조선	子部 > 目錄類 > 金石之屬	예술류(서화류)	李穡
26	陶山語錄 = 退溪先生言行錄	조선	史部 > 傳記類 > 別傳	전기류	李守淵
27	東京雜記	조선	史部 > 地理類 > 方誌	지리류	閔周冕
28	東國李相國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奎報(高麗)
29	東國輿地備考	조선	史部 > 地理類 > 總誌	지리류	이상
30	東國通鑑	조선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徐居正 等
31	東文選	조선	集部 > 總集類 > 一般	시문집류	徐居正 等
32	東醫寶鑑	조선	子部 > 醫家類	의서류	許浚
33	東平尉日記 = 東平記聞	조선	史部 > 雜史類 > 見聞	기행건문일기류	鄭載崙
34	遯庵集	조선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鮮于沆
35	歷代總目 ⇒ 東國歷代總目	조선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洪萬宗
36	櫟翁稗說	조선	集部 > 隨筆類	소설필기류	李齊賢
37	論語或問	조선	經部 > 四書類 > 論語	유교경전류	이상
38	柳淵傳	조선	史部 > 傳記類 > 別傳	전기류	李恒福
39	李白沙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恒福
40	梅墩集	조선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柳廣善
41	孟子疾書	조선	經部 > 四書類 > 孟子	유교경전류	李瀾
42	明史綱目	조선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李玄錫
43	牧隱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穡
44	聞韶漫錄	조선	史部 > 雜史類	역사서류	尹國馨
45	眉叟記言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許穆
46	眉庵日記 = 眉巖日記	조선	史部 > 雜史類 > 日記	기행건문일기류	柳希春
47	博川集 ⇒ 博泉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沃
48	朴通事	조선	子部 > 譯學類	역어류	崔世珍
49	礪溪隱錄	조선	史部 > 政法類 > 通制	제도규정류	柳馨遠

2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50	渤海列傳	조선	集部 > 小說類	소설필기류	許穆
51	四聲通解	조선	經部 > 小學類 > 韻書	음운류	崔世珍
52	三國史記	고려	史部 > 正史類	역사서류	金富軾 等
53	三國遺事	고려	史部 > 雜史類 > 其他	역사서류	一然
54	三淵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金昌翁
55	三韻通考	조선	經部 > 小學類 > 韻書	음운류	미상
56	喪禮備要	조선	經部 > 禮類	유교경전류	申義慶
57	書經疾書	조선	經部 > 書類	유교경전류	李瀼
58	西厓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柳成龍
59	西河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林椿(高麗)
60	雪冤錄	고려	史部 > 傳記類 > 別傳	전기류	車原類
61	聖學十圖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滉
62	聖學輯要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珣
63	宋季元明理學通錄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滉
64	松都志	조선	史部 > 地理類 > 方誌	지리류	金堉
65	松窩雜錄 = 松窩雜說	조선	集部 > 隨筆類	소설필기류	李璣
66	睡隱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姜沆
67	詩經疾書	조선	經部 > 詩類	유교경전류	李瀼
68	心經質疑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德弘
69	樂學軌範	조선	子部 > 藝術類 > 音樂	예술류(음악류)	成倪 等
70	藥泉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南九萬
71	於于野談	조선	集部 > 小說類 > 漢文	소설필기류	柳夢寅
72	輿地勝覽	조선	史部 > 地理類 > 總誌	지리류	盧思慎 等
73	易經疾書	조선	經部 > 易類	유교경전류	李瀼
74	譯語類解	조선	子部 > 譯學類	역어류	金敬俊 等
75	五山說林	조선	史部 > 雜史類	역사서류	車天輅
76	龍飛御天歌	조선	集部 > 詞曲類	시문집류	權躋·鄭麟趾 等
77	愚伏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鄭經世
78	月沙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廷龜
79	柳下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洪世泰
80	栗谷集 = 栗谷全書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珣
81	紫巖文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氏奩
82	張旅軒集 = 旅軒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張顯光
83	鄭桐溪集 = 桐溪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鄭蘊
84	朱子書節要	조선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李滉
85	竹窓閒話 = 竹泉閒話	조선	集部 > 隨筆類	소설필기류	李德洞
86	芝峯類說	조선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李晔光
87	遲川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崔鳴吉
88	懲忿錄	조선	史部 > 雜史類 > 日記	기행건문일기류	柳成龍
89	耽羅聞見錄	조선	史部 > 雜史類 > 見聞	기행건문일기류	鄭運經
90	耽羅志	조선	史部 > 地理類 > 方誌	지리류	李元鎮
91	通文館志	조선	史部 > 職官類 > 官制	제도규정류	金指南
92	退溪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李滉
93	破顏錄	조선	史部 > 雜史類 > 日記	기행건문일기류	李貞敏
94	編年通錄	고려	史部 > 編年類	역사서류	金寬毅(高麗)
95	筆苑雜記	조선	集部 > 隨筆類	소설필기류	徐居正
96	荷潭錄 = 荷潭手記 ⇒ 荷潭破寂錄	조선	集部 > 隨筆類	소설필기류	金時讓
97	韓久庵文集 ⇒ 久菴遺稿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韓百謙
98	海東名臣錄	조선	史部 > 傳記類 > 叢傳	전기류	金堉
99	海東野言	조선	史部 > 雜史類 > 其他	역사서류	許筠
100	海東諸國記	조선	史部 > 政法類 > 外交·通商	제도규정류	申叔舟
101	鄉藥方	고려	子部 > 醫家類	의서류	미상
102	皇華集	조선	集部 > 總集類 > 一般	시문집류	王命編
103	晦隱集	조선	集部 > 別集類 > 一般	시문집류	南鶴鳴

中國本					
	서명	판찬시기	사부분류	주제 분류	편저자
1	家禮集說	명대	經部 > 禮類	유교경전류	馮善(明)
2	賈子新書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유가류	賈誼(漢)
3	簡平儀說	명대	子部 > 曆算類 > 天文之屬	천문역산류	熊三拔(明西人, SabbathindeUrsis)
4	鵬冠子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不著撰人(周)
5	弇州集	명대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王世貞(明)
6	康熙字典	청대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張玉書(清) 等
7	格致叢書	명대	其他 > 叢書類	소설필기류	胡文煥(明)
8	經世書 = 皇極經世書	송대	子部 > 術數類 > 數理之屬	풍수도참류	邵雍(宋)
9	經濟類編	명대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馮琦(明)
10	鷄林類事	송대	史部 > 地理類 > 外紀之屬	지리류	孫穆(宋)
11	稽神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徐鉉(宋)
12	戒庵漫筆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李詔(明)
13	啓禎野乘	청대	史部 > 傳記類 > 總傳之屬	전기류	鄭澐(清)
14	桂海虞衡志	송대	史部 > 地理類 > 雜著之屬	지리류	范成大(宋)
15	古今注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崔豹(晉)
16	古文眞寶	송대	集部 > 總集類 > 通代之屬	시문집류	黃堅(宋)
17	古史攷 = 古史考	당대 이전	史部 > 史評類 > 考辨之屬	역사서류	譙周(蜀)
18	古事捷錄 = 故事捷錄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李廷機(明) 撰; 王相(清) 箋補
19	高僧傳 = 梁高僧傳	당대 이전	史部 > 傳記類 > 總傳之屬	전기류	釋慧皎(梁)
20	穀山筆塵	명대	子部 > 雜家類 > 雜說	잡가류	于慎行(明)
21	穀梁傳 = 春秋穀梁傳	당대 이전	經部 > 春秋類 > 穀梁傳之屬	유교경전류	范甯(晉)
22	困學齋集	원대	集部 > 別集類 > 宋遼金元之屬	시문집류	鮮于樞(元)
23	空同外篇 = 空同集外篇 = 空同子集	명대	集部 > 別集類	시문집류	李夢陽(明)
24	公是雜著 = 公是集雜著	송대	集部 > 別集類 > 宋遼金元之屬	시문집류	劉敞(宋)
25	公羊傳 = 春秋公羊傳	당대 이전	經部 > 春秋類 > 公羊傳之屬	유교경전류	公羊高(周)
26	孔演圖 = 春秋孔演圖	송대	經部 > 春秋類 > 讖緯之屬	유교경전류	이상
27	孔子家語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유가류	王肅(魏)
28	孔叢子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孔鮒(漢)
29	觀象玩占	명대	子部 > 術數類 > 占候之屬	풍수도참류	劉基(明)
30	管子	당대 이전	子部 > 法家類	법가류	管仲(周)
31	括地志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總志之屬	지리류	李泰(唐)
32	廣雅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訓詁之屬	자전류	張揖(魏)
33	廣志 = 廣東通志	명대	史部 > 地理類 > 都會郡縣之屬	지리류	郭棐(明)
34	國語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左丘明(周)
35	郡國志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지리류	賈耽(唐)
36	群碎錄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陳繼儒(明)
37	關里志	명대	史部 > 傳記類 > 總傳之屬	전기류	陳鎬(明)
38	虬髯客傳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杜光庭(五代)
39	金史	원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脫脫(元)
40	琴操	당대 이전	子部 > 藝術類 > 樂舞之屬	예술류(음악류)	蔡邕(漢)
41	汲冢周書 = 汲冢書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孔晁(晉)
42	急就章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字書之屬	자전류	史游(漢)
43	幾何原本	명대	子部 > 曆算類 > 算學之屬	천문역산류	利瑪竇(明西人, MatteoRicci)
44	紀效新書	명대	子部 > 兵家類	병서류	戚繼光(明)
45	金志 = 大金國志	송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宇文懋昭(宋)
46	南史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李延壽(唐)
47	南越志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雜著之屬	지리류	沈懷遠(晉)

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48	論衡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王充(漢)
49	丹鉛錄 = 丹鉛總錄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楊慎(明)
50	談淵	송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王陶(宋)
51	談苑 = 國老談苑	송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王銍(宋)
52	唐鑑	송대	史部 > 編年類 > 通代之屬	역사서류	范祖禹(宋)
53	唐國史補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李肇(唐)
54	唐類函	명대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俞安期(明)
55	唐六典	당대 이전	史部 > 政書類 > 職官之屬	제도규정류	唐玄宗(唐)
56	唐史 → 舊唐書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劉昫(五代) 等
57	唐書	송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歐陽修(宋)
58	唐末叢書	명대	其他 > 叢書類	소설필기류	鍾人傑·張參辰(明)
59	唐詩品彙	명대	集部 > 總集類 > 斷代之屬	시문집류	高棅(明)
60	唐詩畫譜	명대	子部 > 藝術類 > 書畫之屬	예술류(서화류)	黃鳳池(明)
61	大戴禮 = 大記 = 大戴記 = 大戴禮記	당대 이전	經部 > 禮類 > 大戴禮之屬	유교경전류	戴德(漢)
62	大明律	명대	史部 > 政書類 > 法令之屬	제도규정류	明太祖(明) 勅撰
63	大明一統志	명대	史部 > 地理類 > 總志之屬	지리류	李賢(明) 等
64	大明集禮	명대	史部 > 政書類 > 儀制之屬	제도규정류	徐一夔(明) 等
65	待訪錄	송대	子部 > 藝術類 > 書畫之屬	예술류(서화류)	米芾(宋)
66	大學	송대	經部 > 四書類 > 大學之屬	유교경전류	이상
67	大學衍義	송대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真德秀(宋)
68	大學衍義補	명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丘濬(明)
69	圖經 = 本草圖經	송대	子部 > 醫家類 > 本草之屬	의서류	蘇頌(宋)
70	道德經	당대 이전	子部 > 道家類	도가류	老子
71	道德經解	명대	子部 > 道家類 > 道經之屬	도가류	李贄(明)
72	圖書編	명대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章潢(明)
73	獨斷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蔡邕(漢)
74	讀書錄	명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薛瑄(明)
75	東觀漢紀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劉珍(漢) 等
76	東齋記事	송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許觀(宋)
77	洞天清錄	송대	子部 > 藝術類 > 觀賞之屬	예술류(서화류)	趙希鵠(宋)
78	東坡集	송대	集部 > 別集類 > 宋遼金元之屬	시문집류	蘇軾(宋)
79	杜工部集	당대 이전	集部 > 別集類 > 隋唐五代之屬	시문집류	杜甫(唐)
80	杜氏通典	당대 이전	史部 > 政書類 > 通制之屬	제도규정류	杜佑(唐)
81	斗威儀 = 禮斗威儀	당대 이전	經部 > 禮類 > 讎緯之屬	유교경전류	宋均(魏)
82	登壇必究	명대	子部 > 兵家類	병서류	王鳴鶴(明)
83	論語集註	송대	經部 > 四書類 > 論語之屬	유교경전류	朱熹(宋) 集注
84	龍川集	송대	集部 > 別集類 > 宋遼金元之屬	시문집류	陳亮(宋)
85	柳柳州集	당대 이전	集部 > 別集類 > 隋唐五代之屬	시문집류	柳宗元(唐)
86	六韜	당대 이전	子部 > 兵家類 > 兵法之屬	병서류	呂望(周)
87	律呂新書	송대	經部 > 樂類	유교경전류	蔡元定(宋)
88	楞嚴經	당대 이전	子部 > 釋家類 > 經之屬	불가류	般刺密帝(唐) 譯 ; 房融(唐) 筆受
89	離騷經	당대 이전	集部 > 楚辭類	시문집류	屈原(周)
90	李太白集	당대 이전	集部 > 別集類 > 隋唐五代之屬	시문집류	李白(唐)
91	林下偶談 = 荊溪林下偶談	송대	集部 > 詩文類 > 總義之屬	시화류	吳子良(宋)
92	萬國全圖 = 坤輿萬國全圖	명대	史部 > 輿圖類	역사서류	利瑪竇(明西人, Matteo Ricci)
93	漫錄 = 病逸漫記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陸釴(明)
94	漫笑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徐璉(宋)
95	孟子	당대 이전	經部 > 四書類 > 孟子之屬	유교경전류	孟子
96	孟子集說	송대	經部 > 四書類 > 孟子之屬	유교경전류	蔡模(宋)
97	孟子集註	송대	經部 > 四書類 > 孟子之屬	유교경전류	朱熹(宋)
98	明季遺聞	청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鄭澐(清)

99	明道雜志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張耒(宋)
100	明史 = 大明史	청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張廷玉(清) 等
101	明史記事本末	청대	史部 > 紀事本末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谷應泰(清)
102	名山記 = 古今遊名山記	명대	史部 > 地理類 > 遊記之屬	지리류	何鍾(明)
103	毛詩正義	당대 이전	經部 > 詩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孔穎達(唐) 等
104	毛詩草木經 = 毛詩草木鳥獸蟲魚疏	당대 이전	經部 > 詩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陸璣(吳)
105	牧齋集 = 錢牧齋集	청대	集部 > 別集類 > 清之屬	시문집류	錢謙益(清)
106	穆天子傳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郭璞(晉)
107	夢溪筆談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沈括(宋)
108	武后心書 = 武侯心書	당대 이전	子部 > 兵家類 > 兵法之屬	병서류	諸葛亮(蜀漢)
109	墨經 = 晁氏墨經	송대	子部 > 藝術類 > 文房器物之屬	예술류(서화류)	晁貫之(宋)
110	黠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王銍(宋)
111	文選	당대 이전	集部 > 總集類 > 通代之屬	시문집류	蕭統(梁) 編; 李善(唐) 注
112	文選六臣注 = 六臣註文選	당대 이전	集部 > 總集類 > 通代之屬	시문집류	蕭統(梁) 編; 李善(唐) 等 六臣 注
113	捫蝨新話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陳善(宋)
114	文苑	송대	集部 > 總集類 > 通代之屬	시문집류	李昉(宋) 等
115	文苑雜錄	원대	史部 > 政書類 > 雜著之屬	역사서류	陳襄(元)
116	文獻通考	원대	史部 > 政書類 > 通制之屬	제도규정류	馬端臨(元)
117	博物志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張華(晉)
118	方言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方言之屬	사전류	揚雄(漢)
119	白香山集	당대 이전	集部 > 別集類 > 隋唐五代之屬	시문집류	白居易(唐)
120	白虎通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班固(漢)
121	法言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揚雄(漢)
122	碧雲觀	송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梅堯臣(宋)
123	復性書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性理之屬	유가류	李翱(唐)
124	本草 = 神農本草經	당대 이전	子部 > 醫家類 > 本草之屬	의서류	神農氏
125	本草綱目	명대	子部 > 醫家類 > 本草之屬	의서류	李時珍(明)
126	本草拾遺	당대 이전	子部 > 醫家類	의서류	陳藏器(唐)
127	北堂書鈔	당대 이전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虞世南(唐)
128	北夢瑣錄 = 北夢瑣言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孫光憲(宋)
129	北史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李延壽(唐)
130	埤雅	송대	經部 > 小學類 > 訓詁之屬	사전류	陸佃(宋)
131	史記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通代之屬	역사서류	司馬遷(漢)
132	史略	원대	史部 > 史略類	역사서류	曾先之(元)
133	事文類聚	송대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祝穆(宋)
134	四聲譜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韻書	음운류	沈約(梁)
135	山河兩界圖說 = 山河兩戒考 ⇒ 唐一行 山河分野圖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總志之屬	지리류	釋一行(唐)
136	算學啓蒙	원대	子部 > 曆算類 > 算學之屬	천문역산류	朱世傑(元)
137	山海經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郭璞(晉)
138	三國志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陳壽(晉)
139	三國志演義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羅貫中(明)
140	三輔決錄	당대 이전	史部 > 傳記類 > 總傳之屬	전기류	趙岐(漢)
141	三才圖會	명대	子部 > 類書類	백과사전류	王圻(明)
142	網素雜記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黃朝英(宋)
143	商子 = 商君 = 商君書	당대 이전	子部 > 法家類	법가류	商鞅(秦)
144	索隱 = 史記索隱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通代之屬	역사서류	司馬貞(唐)
145	書經 = 尙書 = 尙書大傳 = 書大傳	당대 이전	經部 > 書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孔安國(漢) 傳; 陸德明(唐) 音義
146	西京雜記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劉歆(漢)
147	鼠璞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戴埴(宋)

2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148	書史	송대	子部 > 藝文類 > 書畫之屬	예술류(서화류)	米芾(宋)
149	書儀	송대	史部 > 政書類 > 儀制之屬	제도규정류	司馬光(宋)
150	書集傳	송대	經部 > 書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蔡沈(宋)
151	釋名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訓詁之屬	사전류	劉熙(漢)
152	說文 = 說文解字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字書之屬	사전류	許慎(漢)
153	說郛	명대	其他 > 叢書類	소설필기류	陶宗儀(明)
154	說苑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劉向(漢)
155	盛京通志 = 盛京志	청대	史部 > 地理類 > 都會郡縣之屬	지리류	魏樞(清) 等
156	性理大全	명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胡廣(明) 等
157	性理字義 = 北溪字義	송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陳淳(宋)
158	世本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宋衷(漢)
159	世說新語 = 世說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劉義慶(宋)
160	歲時記 ⇒ 荆楚歲時記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雜著之屬	지리류	宗懷(梁)
161	邵氏見聞錄 ⇒ 河南邵氏見聞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邵伯溫(宋)
162	蘇氏演義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蘇轍(唐)
163	小學	송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劉子澄(宋)
164	續文獻通考	명대	史部 > 政書類 > 通制之屬	제도규정류	王圻(明)
165	續博物志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李石(宋)
166	續儀禮經傳	송대	經部 > 禮類 > 通禮之屬	유교경전류	黃榦(宋)
167	續雜纂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王銍(宋)
168	續漢書	당대 이전	史部 > 正史類	역사서류	司馬彪(晉)
169	宋史	원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脫脫[토크토](元)
170	宋書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沈約(梁)
171	宋朝名臣錄 = 宋朝名臣言行錄 ⇒ 宋名臣言行錄	송대	史部 > 傳記類 > 總傳之屬	전기류	朱熹(宋)
172	松總寤言	명대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崔銑(明)
173	水經注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山水之屬	지리류	桑欽(漢) 撰；酈道元(後魏) 注
174	隋唐嘉話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劉餗(唐)
175	修文御覽 = 修文殿御覽	당대 이전	子部 > 類書類 > 彙考	백과사전류	顏之推(北齊)
176	隋書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魏徵(唐)
177	授神記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干寶(晉)
178	袖中錦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太平老人(宋)
179	水滸傳 = 水滸志	명대	集部 > 小說類	소설필기류	施耐庵·羅貫中(明)
180	荀子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유가류	荀況(周)
181	淳化閣帖	송대	子部 > 藝文類 > 書畫之屬	예술류(서화류)	王著(宋)
182	拾遺記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王嘉(前秦)
183	升庵集	명대	集部 > 別集類 > 明之屬	시문집류	楊慎(明)
184	詩經 = 毛傳 = 毛詩	당대 이전	經部 > 詩類 > 白文之屬	유교경전류	미상
185	尸子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尸佼(周)
186	申鑑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荀悅(漢)
187	新唐書	송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歐陽修·宋祁同(宋)
188	新論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桓譚(漢)
189	新論 = 劉子新論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 雜學	잡가류	劉勰(梁)
190	新明史	청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顧炎武(清)
191	新序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劉向(漢)
192	新書 = 南部新書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錢易(宋)
193	新語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陸賈(漢)
194	神異經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東方朔(漢)
195	心經 = 心經附註	송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眞德秀(宋) 撰；程敏政(明) 註
196	十二種辨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呂元(宋)
197	十竹齋畫譜	명대	子部 > 藝文類 > 書畫之屬	예술류(서화류)	胡正言(明)

198	顏氏家訓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 鑑戒禮教之屬	유가류	顏之推(北齊)
199	野客叢談 = 野客叢書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王楙(宋)
200	鄴中記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都會郡縣之屬	지리류	陸翽(晉)
201	餘冬序錄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何孟春(明)
202	呂氏春秋 = 呂覽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呂不韋(秦)
203	易學正 = 周易學正	당대 이전	經部 > 易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郭京(唐)
204	逆旅集	명대	集部 > 別集類 > 宋遼金元之屬	시문집류	焦源溥(明)
205	易傳 = 京氏易傳	당대 이전	經部 > 易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京房(漢)
206	演繁露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程大昌(宋)
207	硯譜	송대	子部 > 藝術類 > 文房器物之屬	예술류(서화류)	不著撰人(宋)
208	燕翼貽謀錄 = 燕翼錄	송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王楙(宋)
209	涅槃經 = 大般涅槃經	당대 이전	子部 > 釋家類 > 經之屬	불가류	釋曇無讖(北涼) 譯
210	列子	당대 이전	子部 > 道家類	도가류	列禦寇(周)
211	鹽鐵論	당대 이전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桓寬(漢)
212	瀛奎律髓	원대	集部 > 總集類 > 通代之屬	시문집류	方回(元)
213	嶺南異物志 = 異物志 → 嶺表錄異記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雜著之屬	지리류	劉恂(唐)
214	禮記 = 禮經	당대 이전	經部 > 禮類 > 禮記之屬	유교경전류	미상
215	藝苑雌黃	송대	集部 > 詩話類 > 詩話之屬	시화류	嚴有翼(宋)
216	藝苑卮言	명대	集部 > 詩話類 > 總義之屬	시화류	王世貞(明)
217	瘞鶴銘	당대 이전	史部 > 金石類 > 石之屬	예술류(서화류)	陶弘景(梁)
218	五經通義	당대 이전	經部 > 總義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劉向(漢)
219	五代史	송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歐陽修(宋)
220	烏臺詩案	송대	集部 > 詩話類 > 詩話之屬	시화류	朋九萬(宋)
221	吳越春秋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趙曄(漢)
222	五雜俎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謝肇淛(明)
223	五行傳 = 洪範五行傳論	당대 이전	經部 > 書類 > 尚書緯	유교경전류	劉向(漢)
224	玉照新志	송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王明清(宋)
225	宛委餘編 = 宛委編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王世貞(明)
226	王氏談錄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王洙(宋)
227	遼邸記聞	명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錢希言(明)
228	容齋隨筆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洪邁(宋)
229	韻府群玉 = 韻玉	원대	子部 > 書類	백과사전류	陰時夫(元)
230	韻會 = 古今韻會	원대	經部 > 小學類 > 聲韻之屬	음운류	黃公紹(元)
231	元史	명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宋濂(明)
232	魏略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事實之屬	역사서류	魚豢(晉)
233	尉繚子	당대 이전	子部 > 兵家類 > 兵法之屬	병서류	尉繚(周)
234	魏典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元譙(唐)
235	酉陽雜俎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段成式(唐)
236	六書故	원대	經部 > 小學類 > 字書之屬	자전류	戴侗(元)
237	儀禮	당대 이전	經部 > 禮類 > 儀禮之屬	유교경전류	鄭玄(漢) 注
238	儀禮經傳 = 儀禮經傳通解	송대	經部 > 禮類 > 儀禮之屬	유교경전류	朱熹(宋)
239	儀禮旁通圖	송대	經部 > 禮類 > 儀禮之屬	유교경전류	楊復(宋)
240	儀禮續通解 = 儀禮經傳通解續	송대	經部 > 禮類 > 通禮之屬	유교경전류	黃榦(宋)
241	醫學入門	명대	子部 > 醫家類 > 醫經之屬	의서류	李梴(明)
242	夷堅志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洪邁(宋)
243	耳談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王同軌(明)
244	伊洛淵源錄	송대	史部 > 傳記類 > 總傳之屬	전기류	朱熹(宋)
245	爾雅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訓詁之屬	자전류	郭璞(晉) 注
246	爾雅疏 = 爾雅註疏	송대	經部 > 小學類 > 訓詁之屬	자전류	邢昺(宋) 疏
247	爾雅翼	송대	經部 > 小學類 > 訓詁之屬	자전류	羅願(宋)
248	二程遺書 = 二程文集	송대	集部 > 總集類 > 氏族之屬	시문집류	程顥·程頤(宋)
249	字林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字書之屬	자전류	呂忱(晉)
250	字義 = 北溪字義	송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陳淳(宋)

3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251	資治通鑑	송대	史部 > 編年類 > 通代之屬	역사서류	司馬光(宋)
252	資治通鑑綱目	송대	史部 > 編年類 > 通代之屬	역사서류	朱熹(宋)
253	字彙	명대	經部 > 小學類 > 字書之屬	사전류	梅膺祚(明)
254	潛虛	송대	子部 > 術數類 > 數理之屬	풍수도참류	司馬光(宋)
255	雜事秘辛 = 漢雜事秘辛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不著撰人(漢)
256	雜纂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李商隱(唐)
257	莊子 = 南華經	당대 이전	子部 > 道家類 > 先秦學說之屬	도가류	莊周(周)
258	褚氏遺書	당대 이전	子部 > 醫家類 > 總論之屬	의서류	褚澄(南齊)
259	赤堇經	당대 이전	子部 > 術數類 > 雜技術	풍수도참류	張良(漢)
260	戰國策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미상; 鮑彪(宋) 注
261	戰國策音義	당대 이전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延篤(漢)
262	前漢書 = 漢書 = 班史 = 班氏書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班固(漢)
263	征南本集 = 晉杜征南集	당대 이전	集部 > 別集類 > 魏晉南北朝之屬	시문집류	杜預(晉)
264	程氏外書	송대	子部 > 儒家類 > 經濟性理之屬	유가류	程頤(宋)
265	靖節集 = 陶靖節集	당대 이전	集部 > 別集類 > 魏晉南北朝之屬	시문집류	陶潛(晉)
266	鄭志	당대 이전	經部 > 總義類 > 石經之屬	유교경전류	鄭小同(魏)
267	帝王世紀	당대 이전	史部 > 別史類	역사서류	皇甫謐(晉)
268	朝鮮賦	명대	史部 > 地理類 > 外紀之屬	지리류	董越(明)
269	左編 = 唐氏左編 => 歷代史纂左編	명대	史部 > 史鈔類	역사서류	唐順之(明)
270	周禮	당대 이전	經部 > 禮類 > 周禮之屬	유교경전류	미상; 鄭玄(漢) 注
271	周髀 => 周髀算經	당대 이전	子部 > 曆算類 > 天文之屬	천문역산류	미상
272	周易 = 易經	당대 이전	經部 > 易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程頤(宋) 傳; 朱熹(宋) 本義
273	周易大傳 => 周易傳義大全	명대	經部 > 易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胡廣(明)
274	周易折中	청대	經部 > 易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李光地(清)
275	朱子家禮	송대	經部 > 禮類 > 雜禮俗之屬	유교경전류	朱熹(宋) 撰; 丘濬(明) 重編
276	朱子大全	송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朱熹(宋)
277	朱子語類	송대	子部 > 儒家類	유가류	黎靖德(宋)
278	主制群微	청대	子部 > 雜家類 > 西學書	서학류	湯若望(清西人, Johann Adam Schall von Bell)
279	竹譜	당대 이전	子部 > 藝文類 > 遊藝之屬	예술류(서화류)	戴凱(晉)
280	中庸	당대 이전	經部 > 四書類 > 中庸之屬	유교경전류	子思(戰國一週)
281	中庸或問	송대	經部 > 四書類 > 中庸之屬	유교경전류	朱熹(宋)
282	志林 => 東坡先生志林集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蘇軾(宋)
283	職方外紀	명대	史部 > 地理類 > 外紀之屬	지리류	艾儒略(明西人, Giulio Aleni)
284	晉書	당대 이전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房玄齡(唐) 等
285	集古錄	송대	史部 > 金石類 > 通論之屬	예술류(서화류)	歐陽修(宋)
286	纂要	당대 이전	經部 > 小學類 > 訓詁之屬	사전류	梁元帝(梁)
287	參同契 = 周易參同契	당대 이전	子部 > 道家類 > 眾術之屬	도가류	魏伯陽(漢)
288	蔡傳 = 書經集傳	송대	經部 > 書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蔡沈(宋)
289	天問略	명대	子部 > 曆算類 > 天文之屬	천문역산류	陽瑪君(明西人, Diaz Emmanuel)
290	天文星占	당대 이전	子部 > 曆算類 > 天文之屬	천문역산류	甘德(戰國一齊/楚)
291	輟耕錄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陶宗儀(明)
292	鐵圍山叢談	송대	史部 > 雜史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蔡絛(宋)
293	青箱雜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吳處厚(宋)
294	青鳥經 => 青鳥先生葬經	당대 이전	子部 > 術數類 > 相宅相墓之屬	풍수도참류	青鳥子(漢)
295	清異錄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陶穀(宋)
296	苕溪叢話 = 苕溪漁隱叢話	송대	集部 > 詩文類 > 詩話之屬	시화류	胡子(宋)
297	焦貢易林 = 易林 => 焦氏易林	당대 이전	子部 > 術數類 > 占卜之屬	풍수도참류	焦贛(漢)
298	草堂詩餘	송대	集部 > 詞曲類 > 詞之屬 > 總集	시문집류	何士信(宋)

299	草木子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葉子奇(明)
300	楚詞 => 楚辭	당대 이전	集部 > 楚辭類	시문집류	王逸(漢)
301	椒山集 => 楊椒山先生文集	명대	集部 > 別集類 > 明之屬	시문집류	楊繼盛(明)
302	春秋	당대 이전	經部 > 春秋類 > 左傳之屬	유교경전류	孔子 編纂
303	春秋決事比 => 春秋決事	당대 이전	經部 > 春秋類 > 公羊傳之屬	유교경전류	董仲舒(漢)
304	春秋考	송대	經部 > 春秋類 > 總義之屬	유교경전류	葉夢得(宋)
305	春秋繁露	당대 이전	經部 > 春秋類 > 公羊傳之屬	유교경전류	董仲舒(漢)
306	春秋說 => 春秋通說	송대	經部 > 春秋類 > 總義之屬	유교경전류	黃仲炎(宋)
307	春秋左氏傳 = 左氏傳 = 左傳 = 春秋傳 = 春秋佐傳	당대 이전	經部 > 春秋類 > 左傳之屬	유교경전류	左丘明(周)
308	春秋胡傳 = 胡氏傳	송대	經部 > 春秋類	유교경전류	胡安國(宋)
309	吹劍錄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俞文豹(宋)
310	七克	명대	子部 > 雜家類 > 西學書	서학류	龐迪我(明西人, Didace de Pantoja)
311	七略	당대 이전	史部 > 書目類 > 總目之屬	역사서류	劉歆(漢)
312	太平廣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李昉(宋) 等
313	太玄經 = 太玄	당대 이전	子部 > 術數類 > 數理之屬	풍수도참류	揚雄(漢)
314	通鑑續編	원대	史部 > 編年類 > 通代之屬	역사서류	陳樞(元)
315	通典	당대 이전	史部 > 政書類 > 通制之屬	제도규정류	杜佑(唐)
316	通志	송대	史部 > 紀傳類 > 通代之屬	역사서류	鄭樵(宋)
317	稗海	명대	其他 > 叢書類	소설필기류	商濬(明)
318	平妖傳	명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羅本(明)
319	抱朴子	당대 이전	子部 > 道家類 > 概說之屬	도가류	葛洪(晉)
320	風俗通 = 風俗通議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應劭(漢)
321	楓櫨小牘 => 楓窗小牘	송대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袁褱(宋)
322	風土記	당대 이전	史部 > 地理類 > 雜著之屬	지리류	周處(晉)
323	筆叢錄 => 少室山房筆叢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胡應麟(明)
324	鶴林玉露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羅大經(宋)
325	漢官舊儀	당대 이전	史部 > 政書類 > 職官之屬	제도규정류	衛宏(漢)
326	漢武故事	당대 이전	子部 > 小說家類 > 筆記之屬	소설필기류	班固(漢)
327	韓文考異 = 考異	송대	集部 > 別集類 > 隋唐五代之屬	시문집류	朱熹(宋)
328	韓非子	당대 이전	子部 > 法家類	법가류	韓非(周)
329	韓詩外傳	당대 이전	經部 > 詩類 > 三家詩之屬	유교경전류	韓嬰(漢)
330	蟹譜	송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傅肱(宋)
331	荊川右編 => 荊川先生右編	명대	史部 > 詔冊奏議類 > 奏議之屬	제도규정류	唐順之(明)
332	鴻苞	명대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屠隆(明)
333	皇明館課 => 國朝館課經世宏辭	명대	集部 > 總集類 > 課藝之屬	시문집류	王錫爵(明)
334	黃山谷集 => 黃文節山谷先生文集	송대	集部 > 別集類 > 宋遼金元之屬	시문집류	黃庭堅(宋)
335	黃庭經	당대 이전	子部 > 道家類 > 道經之屬	도가류	白履忠(唐) 註
336	黃帝素問 => 黃帝素問靈樞經	당대 이전	子部 > 醫家類 > 醫經之屬	의서류	미상
337	淮南子 = 鴻烈解	당대 이전	子部 > 雜家類	잡가류	劉安(漢)
338	孝經	당대 이전	經部 > 孝經類 > 傳說之屬	유교경전류	唐玄宗(唐) 註
339	孝經援神契	당대 이전	經部 > 禮類 > 讖緯之屬	유교경전류	미상
340	後漢書	송대	史部 > 紀傳類 > 斷代之屬	역사서류	范曄(劉宋)